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Vol. 03. No. 01 pp. 01-11, 2024
ISSN 2951-2468 (Online)
DOI : https://doi.org/10.23152/JATC.2024.03.01.001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서우[1], 방가영[1], 윤일훈[1], 문원희[2*]
[1]배재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배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Good Death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on Empathy Capacity among Nursing Students

Seo-U Mo[1], Ga-Young Bang[1], Il-hun Yoon[1], Weon-Hee Moon[2*]
[1]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환자에 대한 간호태도가 공감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155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총 34일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더미변수인 '지인의 죽음 경험'을 통제한 결과, 임종간호태도가 높을수록(B=.312)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인의 임종경험(β=.226), 임종간호태도(β=.220)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968, p<.001). 하나의 더미변수(지인의 임종경험)와 2개의 독립변수(임종간호태도, 좋은 죽임 인식)는 공감능력을 10.4%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간호대학생, 임종경험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determine how nursing students' good death awareness and nursing attitudes toward dying patients affect their empath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5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metho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6. Higher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B=.312)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athy capacity (p<.010). The variables that affected nursing students' empathy capacity were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β=.226) and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β=.220).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6.968, p<.001), explained 10.4% of empath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strengthen the empathy capac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future.

Key Words :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s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Nursing Students, End-of-Life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Weon-Hee Moon(whmoon@pcu.ac.kr)
Received February 8, 2024 Revised February 23, 2024
Accepted March 21, 2024 Published March 30, 2024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대학병원 입원환자들은 밝고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같이 대해주는 간호사를 선호하고, 환자들은 이러한 간호사를 신뢰하여 안정감을 느끼며 계속 투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1].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질환과 장애 등의 위기에 직면하며 겪는 고통과 절망, 두려움 등을 대상자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는 자세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된다[2]. 예비 간호사들에게 있어 공감역량은 대상자와 그들의 가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과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 하겠다[2,3].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개념이로,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통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다[4]. 공감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 중심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늘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이 편안한 마지막 순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임종간호태도를 보이고[5]. 환아와 보호자를 면밀하게 살피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질 높은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6].

사람은 다양한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선택해 나가며 성장한다.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안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공감역량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7].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SNS 의존 증가 및 1인 가구 확대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면대면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를 단절시켰다. 성인기 초기에 대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속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고 인간관계의 확장과 자신의 성장을 통해 사회적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의 경험들 때문이다[8]. 대학교육현장의 비대면 수업 장기화는 동료 친구와 선후배 및 교수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한하여 청년들의 대인관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9]. 대학의 교육환경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관계 맺음과 공감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8, 9]. 코로나-19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최근 대학생들의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관계 맺기와 공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10-12]. 비대면 상황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힘들고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감과 협력, 연대 형성 등을 어렵게 한다[12].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 관점[13-15], 공감 만족[16], 공감 역량[17.18], 공감 피로[19,20], 문화적 공감[21,22] 등이 있었다. 임상수행능력[13,23], 대인관계능력[24]에 대한 예측변수로 공감을 다루었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타인인식[25], 성별, 실습유무, 자기인식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26], 성별, 현재건강상태, 정서조절능력,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27]이 있었다.

한편,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2022년 국내 사망자의 74.8%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28]. 좋은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29]. 간호대학생들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30,31] 있는데, 이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피하고 존엄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임종을 맞는 것을 좋은 죽음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0,31]. 임종 환자와 그 가족들과 밀접하게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간호사들에 있어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2].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임상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33] 이는 임상현장에서 죽음을 많이 접하면서 좋은 죽음의 의미를 자주 생각할수록 더 긍정적인 죽음관을 갖게 되며[32,34],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인 간호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간호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인간호의 중요성을 학습하기 때문이다[31].

실제로 국내의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와 말기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을 위해 간호학과 학부과정에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35]. 그리고 간호학과 학부과정에서는 호스피스완화간호와 웰다잉 등을 주제로 특강이나 성인간호학 혹은 개별 교과목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이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시절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죽음교육은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임상실습에서 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은 간호전문지식을 토대로 대상자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민감성과 통찰력을 통해 대상자와 감성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4].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공감 역량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역할을 대신해 보고 적절히 반응하는 경험들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5].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되었고[36], 공감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 회복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37].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1, 5, 6, 38] 대부분 간호사 대상 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역량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환자를 대하는 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Deviation from Zero)에 요구되는 적정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7개, 독립변수 2개)를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은 114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34일이 소요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159명이었고,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4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155명이 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측정을 위해 Schwartz 등[39]이 개발한 'Concept of a Good Death Measurement'를 Lee[4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개의 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인 '친밀감' 9문항, '임상증상' 5문항, '통제감'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wartz 등[3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고, Lee[40]의 연구에서는 .69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0이었다.

2.3.2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 측정을 위해 Frommelt[41]의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Scale을 Lee[40]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인 '환자들에 대한 태도' 20문항과 '가족들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Frommelt[41]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은 .94였고, Lee[40]의 연구에서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76이었다.

2.3.3 공감역량

공감역량 측정을 위해 Wakabayashi[42]가 개발한 'EQ Short form'을 Yeo[43]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한 '한국판 단축형 공감척도(EQ short-K)'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패키지 내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과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공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설문을 위한 연구도구들은 각 저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설명하고 사용을 허가받았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연구 도중 중단을 희망할 경우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특성별 좋은 죽음인식,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의 평균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26명(81.3%), 종교는 무교가 100명(64.5%)으로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내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Table 1). 학년 분포에서는 2학년 44명(28.4%), 3학년 43명(27.7%), 1학년 35명(22.6%), 4학년 33명(21.3%) 순으로 집계되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8±2.20세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없음'에 응답한 대상자가 115명(74.8%)으로 '있음' 응답자 40명(25.8%)보다 많았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을 관찰한 경험'이 '있음'은 23명(전체 155명 중 14.8%)이었다. 지인의 임종을 경험의 경우 '없음' 응답자(81명, 52.3%)가 '있음' 응답자(74명, 47.7%)보다 많았다. 임종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없음' 응답자(109명, 70.3%)가 '있음' 응답자(46명, 29.7%) 보다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종교, 임상경험, 임종환자 경험, 지인의 임종경험 여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0) (Table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임종간호태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p=.005)과 임종교육 경험 유무(p=.00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F=4.459, p=.005), 임종교육을 받은 집단의 임종간호태도(3.03±0.27점)가 그렇지 않은 집단(2.90±0.24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939, p=.00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공감역량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집단의 공감역량 평균(3.16±0.33점)이 없다고 답한 집단(3.06±0.3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556, p=.012)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의 평균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의 평균은 2.94±0.37점이었고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은 2.93±0.25점, 공감능력의 평균은 3.09±0.36점이었다(Table 2).

Table 2. Amount of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M±SD	Range
Good Death Awareness	2.94±0.37	1~4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2.93±0.25	1~4
Empathy Capacity	3.09±0.36	1~4

Table 1. Differences between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s		Frequency(%)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9(18.7)	2.97±0.41	0.467 (.641)	2.85±0.23	-2.050 (.420)	3.16±0.40	1.279 (.203)
	Female	126(81.3)	2.93±0.36		2.96±0.26		3.07±0.35	
Grade	1st	35(22.6)	2.84±0.38	1.379 (.251)	2.83±0.23	4.457 (.005)	3.00±0.35	1.298 (.277)
	2nd	44(28.4)	2.93±0.30		2.91±0.25		3.12±0.36	
	3rd	43(27.7)	3.01±0.41		3.00±0.25		3.07±0.33	
	4th	33(21.3)	2.97±0.37		3.02±0.28		3.17±0.41	
Age (years old): M±SD		20.68±2.20						
Religion	Atheism	100(64.5)	2.92±0.37	0.313 (.816)	2.93±0.25	0.316 (.814)	3.10±0.35	1.942 (.125)
	Christian	34(21.9)	2.95±0.35		2.94±0.28		3.08±0.37	
	Buddhism	6(3.9)	3.06±0.26		2.99±0.40		3.39±0.48	
	Catholic	15(9.7)	2.97±0.48		2.99±0.22		2.98±0.35	
Clinical Experience	Yes	40(25.8)	3.00±0.40	1.148 (.253)	3.00±0.27	1.675 (.960)	3.16±0.40	1.461 (.146)
	No	115(74.2)	2.92±0.36		2.92±0.25		3.06±0.34	
End-of-Life Experiences during Clinic Training	Yes	23(14.8)	2.94±0.49	0.046 (.482)	2.97±0.27	0.555 (.580)	3.19±0.46	1.407 (.162)
	No	132(85.2)	2.94±0.35		2.93±0.26		3.08±0.34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74(47.7)	2.92±0.40	-0.635 (.263)	2.92±0.25	-0.956 (.341)	3.17±0.37	2.556 (.012)
	No	81(52.3)	2.96±0.35		2.95±0.26		3.02±0.34	
Education Experience of End-of-Life	Yes	46(29.7)	3.01±0.41	1.552 (.061)	3.03±0.27	2.939 (.004)	3.16±0.33	1.530 (.128)
	No	109(70.3)	2.91±0.35		2.90±0.24		3.06±0.37	

3.3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임종간호태도(r=.231, p=.004), 공감역량(r=.176, p=.02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있었다.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와 공감역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종간호태도는 공감역량(r=.235, p=.003)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and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A	B	C	D
	r (*p*)	r (*p*)	r (*p*)	r (*p*)
[A]Good Death Awareness	1			
[B]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231** (.004)	1		
[C]Empathy Capacity	.176* (.028)	.235** (.003)	1	
[D]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051 (.263)	-.077 (.170)	.202** (.006)	1

[D]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dummy variable

3.4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공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지인의 임종경험(참조 항목은 없음)'을 더미변수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703	0.356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0.164	0.056	.226	2.957	.004
Good Death Awareness	0.134	0.077	.137	1.745	.083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0.312	0.111	.220	2.806	.006
R^2=0.122 Adjusted R^2=0.104 F=6.968 p=.000 (p<.001)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되었는데, Durbin-Watson 값은 1.899로 검정통량(1.740)보다 크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독립변수는 공차한계가 0.993~0.946 로 모두 0.10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 또한 1.007~1.061로 10 미만으로 분석되어 모든 변수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즉 더미변수인 '지인의 임종경험'의 경우 '없다'고 답한 집단에 비해 '있다'고 답한 집단(B=.16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감역량이 높았다(t=2.957, p=.004).

더미변수 '지인의 임종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종간호태도(B=.312)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806, p=.006). 반면 좋은 죽음 인식(B=.134)이 높을수록 공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45, p=.083).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인의 임종경험'(β=.226)이었고 다음으로 임종간호태도(β=.220)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968, p<.001). 1개의 더미변수와 2개의 독립변수로 공감역량을 10.4% 설명하였다.

종합하자면, 회귀분석 결과 '지인의 임종경험'과 '임종간호태도'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고 임종간호태도가 높을수록 공감역량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중 2.94±0.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won과 Hong[44]의 연구결과(2.88±0.67점), Kim et al[45]의 연구결과(3.03±0.32점) 그리고, Kang & Kim[46]의 연구결과(3.08±0.29점)과 유사한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면, Kwak[47]의 연구결과(3.31±0.30점)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Kwak[47]의 연구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학과의 커리큘럼 상 임상실습을 하기 전인 1-3학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 평균점수는 2.93±0.2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et al[48]의 연구결과(3.00±0.27점), An & Lee[35]의 연구결과(2.94±0.27점)와 유사한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Hwang & Kim[33]의 연구결과(2.82±0.23점)와 Jo et al[5]의 연구결과(2.74±0.31점)보다는 본 연구결과의 평균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Hwang & Kim[33]의 연구와 Jo et al[5]의 연구는 면허를 가지고 임상에서 임종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각 일반적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종교,

임상실습경험, 임상실습 중 임종환자 관찰 경험 유무, 지인의 임종경험 유무, 그리고 임종교육 경험 유무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Kim et al[45], Kwak[47] 등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성별, 나이, 학년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임종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종간호태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연구를 진행했던 Kim et al[48]의 연구가 임상실습 경험 유무와 실습 중 환자의 죽음 경험 유무가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의 일반적 특성별 평균 차이에서는 지인의 임종경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높았다. 이는 Yeo[25]의 연구에서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 유무가 평균의 차이를 보였던 결과와 Kim & Yi[26]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가 평균의 차이를 보였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선 두 연구는 COVID-19 이전에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생활 일부분 혹은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학년에게 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그리고 공감역량의 상관관계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임종간호태도와 공감역량 모두에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40]의 연구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인의 임종경험과 임종간호태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Yeo[25]의 연구에서 학년, 임상실습 유무가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 Kim & Yi[26]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가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통적으로 학년별 공감역량의 수준 차이를 보였던 지난 연구들에 반해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제한적 상실로 인해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는 대학 내 시스터제도 등을 통해 각 학년별 교류가 이루어지며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팬데믹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은 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높은 수준의 공감역량은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6] 따라서 예비간호사들에게 공감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학년 혹은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가 코로나 이전 시대의 학생들과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COVID-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시행되는 연구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받던 간호대학생과 대면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임상실습까지 시행한 간호대학생의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Lee[4]의 '간호사 대상 공감역량 측정도구'나 Davis[49]의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연도)'를 사용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Yeo[43]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Q short-K)'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분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호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공감역량을 함양하여 임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지인의 임종경험과 임종간호태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이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던 이전 결과들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로 인해전면 비대면 수업 등 대학생활 내 타인들과의 교류의 경험이 제한되었고 임상실습을 통한 환자들과의 대면기회 또한 제한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화에 주의를 요하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 S. Han, Y. R. Um, Y. S. Hong, N. O. Cho. (2006). Korean Patients' Conceptions of a Good Nurs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9(2)*, 125-142.
DOI: 10.35301/ksme.2006.9.2.125

[2] K. H. Moon. (2016)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burnout in nurs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3] K. H. Baek, Y. M. Yang, M. O. Cho. (20121).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on Resili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7),* 57-66.
DOI: 10.22156/CS4SMB.2021.11.07.057.

[4] Y. J. Lee. (2014). *Development of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 for nurse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5] K. H. Jo, A. R. Park, J. J. Lee, S. J. Choi. (2015). The Effect of Suffering Experience, Empathy Ability, Caring Behaviors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8(4),* 276-284.
DOI: 10.14475/kjhpc.2015.18.4.276

[6] K. Y. Park. (2019). *Pediatric nurse's End-of-life care Stress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7] Y. S. Iem. (2021). Exploring the Changes and Strategies of Human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igital Age through Photovoice.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4),* 107-138, 2021.
DOI: 10.30974/kaice.2021.10.4.5

[8] I. Y. Seo. (2021). Building Relationships in the Non-face-to-face Era: Changes in Human Relations in the Youth through the Gaze of University Students and Qualitative Exploration for Empathy Education. *Social Science Studies, 29(2),* 126-181.
DOI : 10.17787/jsgiss.2021.29.2.126

[9] H. Y. In, J. S. Lee, S. J. Kim. (2021). The College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8),* 141-173, 2021.
DOI: 10.21509/KJYS.2021.08.28.8.141

[10] P. Nunes, S. Williams, B. Sa, K. Stevenson. (2011). A study of empathy decline in students from five health disciplin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 12-17.
DOI: 10.5116/ijme.4d47.ddb0

[11] G. H. Han and I. H. Y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on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Health, 21(4),* 683-697.
DOI: 10.17315/kjhp.2016.21.4.001

[12] D. K. Han. (2021). The Need and Plans of Social Empathy Education in the AI Era.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2,* 55-71.
DOI : 10.20972/kjee.32..202107.55

[13] E. H. Kim. (2018).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326-337.
DOI : 10.5392/JKCA.2018.18.08.326

[14] M. Y. Mun. (2020).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3),* 277-292.
DOI : 10.22251/jlcci.2020.20.3.277

[15] J. Y. Seo. (2019).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4)*, 61-71.
DOI : 10.34089/jknr.2019.3.4.61

[16] E. H. Kim & J. H. Park. (2018). The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0),* 625-640.
DOI : 10.22251/jlcci.2018.18.20.625

[17] Y. K. Ko & S. Y. Yu. (2017). The Effects of Compassionate Competence, Affectivity and Bullying Experiences during Clinical Training on the Major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 2219-2231.
DOI: 10.37727/jkdas.2017.19.4.2219

[18] K. W. Seo. (2019).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Social Connection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499-510.
DOI: 10.22251/jlcci.2019.19.14.499

[19] A. L. Kim. (2017). The Effect of Compassion Fatigue, Ego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on Stress on Clinical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1),* 646-663.
DOI: 10.22251/jlcci.2017.17.21.645

[20] Y. G. Kim & K. S. Kim. (2019). Relationships among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passion Fatigu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387-399.
DOI: 10.35873/ajmahs.2019.9.8.034

[21] S. H. Kwon, H. G. Son, A. R. Han, Y. J. Kim, G. H. Choi. (2017).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69-1081.
DOI : 10.37727/jkdas.2017.19.2.1069

[22] Y. G. Noh & O. S. Lee. (2018).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Ethnocultural Empath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373-381.
DOI : 10.14400/JDC.2018.16.11.373

[23] J. G. Kim, E. Y. Cheon & J. H. Yoo. (201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6(1),* 15-24.
DOI : 10.15268/ksim.2018.6.1.015

[24] N. H. Kim.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735-744.
DOI : 10.35873/ajmahs.2018.8.6.068

[25] H. J. Yeo. (2017).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177-184.
DOI : 10.5762/KAIS.2017.18.1.177

[26] H. J. Kim & M. S. Yi.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DOI : 10.5977/jkasne.2015.21.2.237

[27]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DOI : 10.22251/jlcci.2018.18.22.781

[28]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 *Birth and death statistics for 20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23833

[29] S. H. Kwon & Y. S. Cho. (2019). Current Statu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2(4),* 174-184.
DOI : 10.14475/kjhpc.2019.22.4.174

[30] D. L. Min & E. H. Cho. (2017).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he Korean Communit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9(1),* 28-38.
DOI : 10.17079/jkgn.2017.19.1.28

[31] H. S. Jeon & M. R, Lee. (2020). Influence of Perception to Good Death and Hospice on Dying Car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 58-66.
DOI: 10.22156/CS4SMB.2020.10.12.058

[32] I. Yun, W. H. Moon & S. J. Park. (2023). Perception of Goo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2(2),* 23-30.
DOI: 10.23152/JATC.2023.02.02.023

[33] J. O. Hwang & S. H. Kim. (2019). *Influence of Death Perception,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Mental Health on the Terminal Care Stres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sychiatric Nursing, Inje University, Kimhae, Korea, 323-332.

[34] K. J. Lee, K. H. Hwang, J. S. Park, J. R. Ra, J. A. Hong. (2006). Analysis of the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Hospice Education Institute, 10(1),* 23-39.

[35] M. S. An & K. J. Lee. (2014).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s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7(3),* 122-133.
DOI : 10.14475/kjhpc.2014.17.3.122

[36] Y. H. An & S. R. Seo. (2018. 11.). *Influenc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among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Fall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y of Long-Term Care, The Korean Academy of The Long-Term Care, Seoul, Korea. 203-203.

[37] Y. J. Lee & M. K. A. Seo. (2014. 10.). *Nurses' Empathic Capacity: Analysis of conception*. 2014 Fall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

[38] S. H. Choi. (2012). *Nurses' joys and sorrows of a nurse caring for a dying pati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16-119.

[39]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S. Ma & G. Reed. (2003). Validation of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6(4)*, 575-584.

[40] S. H. Lee. (2017). *Concept of a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1] K. H. Frommelt. (1991).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 and their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8(5),* 37-43.

[42] A. Wakabayashi, S. Baron-Cohen, S. Wheelwright, N. Goldenfeld, J. Delaney, D. Fine et al. (2006). Development of short forms of the Empathy Quotient (EQ-Short) and the Systemizing Quotient (S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5),* 929-940.

[43] J. Y. Yeo.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1),* 5356-5363.

[44] M. S. Kwon & J. Y. Hong. (2019).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Knowledge, Attitude for Advanced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d Curririulum and Instruction, 19(3),* 925-943.

[45] D. R. Kim, C. Y. Yang, H. W. Chae, J. E. Jang, J. S. Yoon, E. H. Cho. (2023). Effects of Good Death Perception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the Attitude towards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3),* 81-90.

[46] E. H. Kang & M. Y. Kim. (2017). Good Death, Self-Esteem, and Attitude to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14(1),* 1-10.

[47] E. J. Kwak. (2019). *The Relationship among Good Death Perception, Attitudes toward Advanced Directives and Attitudes toward Euthanasia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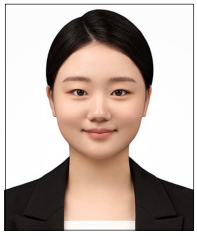
[48] Y. Kim, E. Kong, R. Park, Y. Han, S. Park & S. Yeoum. (2020). The Perception of Death and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among Nursing Stu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10(1),* 31-38.

[49] M. H. Davis. (1983).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lty and Social Psychology, 44(3),* 113.

모 서 우(Seo-U Mo) **[준회원]**

- 2020년 3월 ~ 2022년 2월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학부생
- 202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관심분야 : 간호연구,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 E-Mail : moseowoo@gmail.com

방 가 영(Ga-Young Bang)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관심분야 : 간호연구,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 E-Mail : bangga0310_@naver.com

윤 일 훈(Il-Hun Yoon) [준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2023년 8월 ~ 현재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조직관리실 부본부장
· 관심분야 : 임종간호태도, 중환자간호
· E-Mail : yp041635@naver.com

문 원 희(Weon-Hee Moon) [종신회원]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15년 3월 :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메타분석, 노인,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whmoon@pcu.ac.kr